

# “화광여래로 존경 받을 것” 부처님 법화경서 수기

## ① 지혜제일 사리불舍利佛

〈하〉열반



성문스님의 반야심경부처

“신통이 뛰어난 그대는 마음만 먹으면 한 겁이라도 더 머물 수 있거늘 왜 지금 열반에 들려고 하는 것이요?” 사리불이 식어가는 친구의 손을 감싸며 물었다. “그대 말이 맞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곧 열반에 드시고자 하실 것이네, 내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 먼저 열반에 들려는 것이네.” 목건련이 열반에 들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였다.

### 사리불의 열반 결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1년 전이었다. 목건련은 그렇게 열반에 들었다. 평생 그림자 같았던 친구의 열반을 지켜 본 사리불은 자신도 열반에 들어야겠다고 결심한다. 사리불은 부처님께 자신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 것을 허락받기 위해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한다. 사리불은 목건련의 열반을 아뢰고 자신도 열반에 들 것임을 아뢰었다. 부처님은 말씀이 없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세 번째 간청을 올렸다. “그대는 왜 한 겁 좀 더 머무르려 하지 않고 열반에 들려 하는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목숨이 짧기 때문에 내 목숨도 짧은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겁을 더 머물러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건련도 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실 것을 알기에, 차마 제 눈으로 부처님의 열반을 볼 수 없어 먼저 열반에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부처님은 한 동안 말씀이 없었다. “그렇게 하라.” 사리불은 부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로 한 후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기원정사를 떠난다. 대중들이 사리불의 뒤를 따르자 사리불이 말했다. “대중은 각자 갈 곳으로 가시오.” 대중은 사리불을 공양하고 싶었다. “나는 쫓다 사미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와 함께 갈 것입니다. 대중들은 돌아가 부지런히 수행하시오.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믿음을 성취하기 어렵고, 출가하여 법을 만나기 어렵고, 집착을 끊고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기도 어려운 일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법인(四法印)을 의지하여 길을 가시오. 모든 존재는 덧없는 것이요(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 모든 존재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요(일체개고인·一切皆苦印). 모든 존재는 불변의 자아가 없다는 것이요(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 열반은 영원히 고요한 것이요(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 무상한 존재들이 우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수미산도 변하고 있고, 부처님의 몸도 머

지않아 영원히 쉬게 될 것이요. 하여 나 또한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돌아선 부처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사리불은 가사와 발우를 챙겨들고 사미 쫓다와 만행을 준비했다. 열반을 결심한 사리불의 마지막 만행이다. 사리불은 70년을 살아온 육신을 내려놓기 위해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날라까로 향한다.

### 마지막 전법

사리불의 몸은 열반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노모를 두고 열반에 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사리불의 어머니 이름은 ‘사리’다. 사리불은 사리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래서 사리자(舍利子)라고도 한다. 사리불로 인해 사리불의 형제들은 모두 부처님께 귀의했다. 그 때까지도 바라문교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리불의 어머니다. 긴 세월을

### 부처님 열반 차마 볼 수 없어 열반

#### 고향의 어머니께 마지막 전법

#### 불자들, 반야심경서 사리자 만나

외롭게 보냈을 노모를 생각하니 사리불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어머니는 잠이 들고 꿈을 꾸다. 수많은 하늘의 신들이 열반을 앞둔 사리불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그 중에는 바라문교의 신도 있었다. 바라문교의 신을 알아본 사리불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다. “지금 다녀간 신이 내가 섬기는 바라문교의 신이 맞느냐?”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아들에게 절을 올리는 것을 본 노모는 깜짝 놀라며 꿈을 깬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처님에 대해 묻는다. 사리불은 길에서 맛사지로부터 들었던 계승을 떠올리며 어머니께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한다. “좀 더 일찍 부처님의 법을 알았다면...” 노모는 뒤늦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열반의 문턱에서 아들의 손을 지긋이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사리불은 행복했다. 노모의 귀하는 사리불에게 더 없는 행복이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사리불은 마침내 선정에 든다.



그림·김홍인

### 상수의 열반

부처님께서 죽림정사에 계셨다. 그 때 사리불은 고향 나란다의 날라까 마을에서 열반했다. 쫓다 사미는 그를 간호하고 공양하였는데, 사리불이 열반하자 다비를 한 후, 사리를 쫓고 가사와 바리를 가지고 죽림정사로 가서 사리불의 열반을 알린다. “저의 화상 사리불 존자께서 열반하셨습니다. 사리와 가사와 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쫓다의 말을 듣고,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온 몸이 풀리고 천지가 뒤바뀌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난다가 사리불의 열반 소식을 듣고 슬퍼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가? 아난다여, 그 사리불은 받은 바 계율의 몸을 가지고 열반하였는가? 선정(禪定)의 몸, 지혜의 몸, 해탈의 몸, 해탈지견(解脫知見)의 몸으로 열반하였는가?” 아난다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리불은 계율을 가지고 많이 듣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며, 항상 시간을 멀리 떠나고,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생각을 거두어 편안히 머무르고, 한 마음으로 선정에 들며, 빠르고 날랜 지혜, 깊고 날카로운 지혜, 분별하는 지혜, 큰 지혜, 넓은 지혜의 보배를 성취하여 보이고 가르치고 비추며 대중을 위해 설법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모든 일은 다 함(爲)이 있는 무너지는 법이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겠는가.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해도 그리 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

미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고 생각하는 일체가 갖가지 물건과 뜻에 맞는 일은 다 어기고 떠나는 법으로서 언제나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니라. 큰 나무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가 무성할 때에 큰 가지가 먼저 부러지고, 큰 보배산의 큰 바위가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여래의 대중 권속에서는 저 큰 성문(聲聞)이 먼저 열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너는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그리고 알아야 한다. 여래도 머지않아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마땅히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스스로 의지하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고, 어떤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비구가 몸을 몸으로 관하는 염처에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바른 지혜와 바른 생각으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항복 받고, 이와 같이 바깥 몸과 안팎 몸과, 느낌, 마음, 법을 법으로 관하는 염처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아난다여, 이것을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스스로 의지하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함께 들은 여러 비구들이 받들어 행하였다. 집아함경 권2, 24권 638장에서 부처님은 사리불의 열반을 슬퍼하는 아난다

와 비구들에게 설법하셨다.

### 부처님의 고독

사리불이 열반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부처님께서 마투라국 발타라강가에 있는 산개암라 숲에 계셨다. 포살을 위해 대중이 모였다. “나는 대중을 관찰하다가 허공을 보았다. 그것은 사리불과 목건련이 열반했기 때문이다. 내 성문으로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제대로 설법하고 가르쳤다. 재물은 따라 구하였더니, 여래는 이미 세상에 물과 법재물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 구하고, 법재물은 사리불과 목건련을 따라 구하였더니, 여래는 이미 세상에 물과 법재물에서 떠났구나. 하지만 너희들은 사리불과 목건련이 열반했다고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집아함경 권2, 639 포살경.” 부처님의 열반도 다가오고 있었다.

### 사리자(사리불)여!

부처님도, 사리불도 이 세상에 없을 때였다. 당나라 현장 스님(602~664)은 당시의 한역 경전에 오역이 많음을 느끼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도로 향한다. 익주의 공해사에 이르렀을 때 노스님 한 분을 만난다. 노스님은 인도로 가는 길이 험한 길임을 일러 주며 자기에게 삼제체불의 심요(心要) 법문이 있으니, 이것을 수지하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때 노스님이 현장에게 전한 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반야심경이었다. 오늘날 전해지는 반야심경은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 <소본심경>에 의하면 부처님이 관자재보살을 예로 들어 사리불에게 반야사상을 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본심경>에서는 세존이 라자가가 영취산에서 삼매에 들고, 그러한 삼매속에 관자재보살이 옛날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힘을 빌어 관자재보살께 보살이 행할 바를 묻고, 이 물음에 대해 관자재보살이 <소본심경>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해주고 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사리자(사리불)여! 물질이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공 공이요, 공이 공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지어짐과 의식도 그러하느니라. 사리자여!...” 오늘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른다. 현장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험한 길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 차가운 밤이슬로부터, 사나운 맹수로부터, 포악한 산적들로부터 현장 스님을 지켰던 삼제체불의 심요법문, 반야심경. 그 속에는 ‘사리불’이 있다. 우리는 무명을 벗는 그날까지 그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법화경 비유품에서 말씀하신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장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겁 동안, 수천만 억 나유타나 되는 많은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간직하고 여러 가지를 공양하고 보살의 수행을 완성하여 ‘화광(華光)’이라는 이름의 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여래가 될 것이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 총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 중앙비구니회장 해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 중앙문화원장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 규 정 부 장 수연 범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아리마)

- 이 사 장 해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 중앙총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 총 무 국 장 관음
- 총 무 과 장 청곡

-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 중앙총회위원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 부산총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 대구총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 사천총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임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 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부도 연맹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신신맞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임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